

2015

연구보고서-5

I S S U E P A P E R

# 취약가족 초등 및 중학생 자녀의 학업성취도 영향 요인 분석과 가족지원 과제


수행과제명 • 취약가족 학령기 자녀 지원정책개발

과제책임자 • 김영란 연구위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 취약가족 초등 및 중학생 자녀의 학업성취도 영향 요인 분석과 가족지원 과제\*

수행과제명  취약가족 학령기 자녀 지원정책개발

과제책임자  김영란 연구위원

 Tel: 02-3156-7147

 e-mail: youngran@kwidimail.re.kr

### 요약

취약가족 자녀의 학업성취도에 대한 가족요인의 영향을 파악한 결과, 빈곤이란 가족의 취약성은 양육태도와 자녀의 학습습관을 거쳐 학업성취에 영향을 주고 있으며, 이러한 가족의 취약성이 자녀의 학업성취도를 낮추는데 기여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됨. 이에 취약가족 학령기 자녀 학습 관련 환경요인으로서 가족역량강화지원정책, 자녀 개인요인으로서 학습관련 지원정책, 학령기 자녀 학습 지원체계개선 정책을 제안함.

\* 이 이슈페이퍼는 다음과 같이 인용해 주십시오.

김영란·장혜경·김민정·김은경(2015). 취약가족 학령기 자녀 지원정책개발.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1 배경 및 문제점

■ 가족은 가족구성원에 대한 부양 및 보호의 기능을 하는 일차적인 사회단위로, 핵심적인 기능은 자녀 양육으로 간주됨. 또한 사회적 불평등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이러한 불평등을 반영하고 재생산함. 가족의 배경, 가족구성원의 생활방식, 물질 자원, 문화 및 사회적 자본은 자녀의 인생과 선택권 및 기회에 영향을 미침. 특히 경제적 양극화 등으로 인해 개인적 노력으로 가족환경요인에 따른 불평등을 극복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있어 가족 환경은 자녀세대의 기회의 불평등에 주요한 영향요인이라 할 수 있음.

■ 가구소득이 대학진학 여부에 미친 영향을 비교 분석한 문혜진 외(2015)의 연구에 의하면 최근 코호트에서 대학 진학 및 4년제 대학 진학에 대한 가구소득의 영향력이 증대되는 것으로 나타나, 한국사회에서 가구의 경제적 자원의 크기가 아동의 교육성취에 미치는 영향이 증대되었음을 말해줌. 이는 부모의 교육수준과 소득수준은 학생의 문화활동 형태의 문화자본에 영향을 미치며, 문화자본은 수능성적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김문길 외(2013)의 연구결과를 뒷받침하는 분석결과임.

● 가구 소득이 자녀의 대학 진학에 미치는 영향력이 증대되고 있고, 상위소득 가구일수록 교육비 지출규모가 크다는 것은 한국사회에서 교육을 통한 계층이동의 기회가 제약되고 있음을 의미함. 즉 가족의 경제적 요인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자녀의 교육기회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것임.

■ 가족배경과 학업성취에 대한 연구결과(장상수, 2000; 방하남·김기현, 2002; 구인회, 2003; 박창남외, 2005; 김광혁, 2008; 여유진 외, 2007; 김양분 외, 2014a; 김양분 외, 2014b; 엄문영 외, 2014)들은 가족의

경제적 자원부족에 의한 학업격차를 위하여 사회정책적 개입의 필요성을 주장. 그러나 가족의 경제적 자원으로 투입하는 사교육이 오히려 학업성취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김태일, 2005; 임천순 외, 2004)와 학업성취도 있어 부모의 지원, 부모관계 등 경제적 자원 요인이 아닌 인적자원 요인의 영향력에 대한 연구(이주리, 2010)도 있어, 가족배경에서 경제적 자원의 결핍에만 초점을 두기 어려운 실정임.

■ 자녀의 학업성취와 관련 있는 가족배경은 가족의 경제적 자원 결핍이라는 핵심요인과 부모라는 인적자원 요인 역시 포함돼야 하므로,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취약가족은 경제적자원, 인적자본, 사회적자본 중 어느 하나라도 취약한 경우를 의미함. 가족 자원이 상시 부족한 취약가족에 대하여 자녀 양육관련 지원정책은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로써 국가의 중요한 역할로 요구됨.

■ OECD 국가와 마찬가지로 한국의 경우도 취약가족의 학령기 자녀에 대한 학습관련 지원정책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음.

● 교육 분야 지원정책은 5개 중앙부처에서 33개 세부사업이 추진되고 있음. 교육청의 교육복지지원 사업 역시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학습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사업임.

● 여성가족부의 취약·위기가족 자녀학습·정서지원 서비스는 부모의 자녀학습 지원자로서의 기능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가족분야의 지원사업임.

■ 취약가족 학령기 자녀를 위한 지원정책은 학업성취도에 대한 가족의 경제적 배경과 부모관계, 가족역량 등 인적자본과 사회적자본 등의 영향 요인 분석에 기초하여 설계될 필요가 있음. 가족 환경 요인, 특히 소득격차가 자녀세대의 학업성취도 및 직업, 사회적 지위 격차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그 결과 세대 간 빈곤의 대물림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또한 경제적 양극화의 심화, 세대 간 계층상승

이동의 둔화, 개인적 노력에 의한 성취기회의 제약 등 사회 환경적 변화를 고려한다면 취약가족 학령기 자녀를 위한 학습 지원 정책은 가족환경요인에 의한 학업기회의 제약을 완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대상으로 이뤄져야 함.

■ 본 연구는 취약가족 자녀에 대한 학습지원정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학업성취도에 대한 가족 요인의 영향을 파악하고, 관련 정책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취약가족의 학령기 자녀에 대한 학습 지원은 가족 요인에 따른 학업 성취 기회의 제약을 보완하기 위한 정책이지만, 학습지원정책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주는 가족요인에 대한 개입이 필요하다는 선행연구 결과들이 있으며,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임.

■ 이를 위하여 가정의 빈곤이 자녀의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종단적 영향력과 그 경로를 분석하여, 자녀학업성취도에 대한 부모양육태도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음. 다음으로 가족요인이 자녀의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취약가족 자녀의 학습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정책의 개선 및 보완과제를 발굴하고자 하였음.

## 2 연구 내용 및 방법

### ■ 연구내용

- 첫째,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취약가족 및 학령기 자녀의 정의와 범주에 대한 연구모형 설정

- 둘째, 취약가족 자녀의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선행연구 정리 및 연구모형 구성
- 셋째, 취약가족 학령기 자녀에 대한 지원정책 현황 및 예산규모 파악
- 넷째, 취약가족 자녀의 학업성취도에 빈곤이 미치는 영향력 및 가족 요인의 매개효과를 2차 자료를 통해 검증
- 다섯째, 취약가족 학령기 자녀의 성적 등 학업성취, 학습습관과 자아 존중감 등 학습관련 개인요인과 부모지원, 부모관계, 가족역량 등을 포함한 가족요인, 또래관계 및 교사관계 등 사회적지원 요인에 대하여 가족구성(양부모가구와 한부모 및 기타가구)과 주관적으로 지각된 소득계층별 수준 차이 분석. 또한 가족요인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매개요인은 무엇인지 경로분석을 통해 확인.함
- 여섯째, 취약가족 학령기 자녀 지원정책의 보완 및 개선과제를 자녀 환경요인, 학습관련 개인요인, 추진체제로 구분하여 제안함.

#### ■ 주요 연구방법

- 2차자료(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한국아동청소년패널) 분석
  - 빈곤이 자녀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종단적 영향력과 그 경로를 분석하기 위하여 초등학교 4학년과 중학교 1학년부터 시작해, 이후 2년간의 자료를 사용함. 분석에는 빈곤변수를 산출하기 위하여 부모대상 질문문항 중 가구소득 및 가족 구성에 대해 응답한 조사대상자만 포함함. 최종 분석사례 수는 초등학교 4학년 패널 2,231명, 중학교 1학년 패널 2,200명임.
- 설문조사 실시 및 분석
  - 조사대상자는 취약가족의 범주에 부합되는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를 이용하는 초등학생과 중학생으로 설정함. 조사 결과 분석사례는 초등학생 212명, 중학생 293명임.

### 3 선행연구 검토와 취약가족 학령기 자녀 지원정책 현황

#### 가. 취약가족과 학령기 자녀의 정의 및 규모 추정

- 취약가족이란 가족의 경제적 취약성과 구조적 취약성을 모두 고려한 개념임.
- 취약가족의 범주를 저소득계층 가족과 한부모가족, 조손가족에 국한하고자 함. 물론 취약가족의 정의에 따라 범주화 할 경우 다른 가구 유형이 포함될 수 있지만, 학령기 자녀의 학습관련 가족요인의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는 본 연구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가구 유형을 제한하여 접근하기 위함임.
- 학령기 자녀는 취학 전에 대응되는 개념과 학령 아동 변동 추계에서 사용하는 개념을 동시에 적용하며, 학령기 자녀를 둔 가족에 대해 돌봄 이외에 교육 및 학습관련 지원이 요구된다는 점에 주목하고자 함. 따라서 본 연구에서 학령기 자녀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자녀를 의미함.
- 취약가족 학령기 자녀 규모는 정확하게 파악이 어려움. 경제적 자원 이외에 인적 자본, 사회적 자본의 취약성까지 고려할 경우 현재의 통계로는 규모추산이 불가능하기 때문 임. 다만, 경제적 자원의 취약성을 기준으로 빈곤아동과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등의 자녀나 학생 규모를 통해 추정하는 방법이 가능함.
- 빈곤아동(Child Poverty)이란, 아동자신이 빈곤하기보다는 아동이 속한 가족의 빈곤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UN과 OECD 주요 국가에서 사용하고 있는 법적규정 18세 미만의 아동이 속한 가족이 빈곤할 때, 빈곤아동으로 부름(김미숙, 2010: 허선 외, 2014:8에서 재인용). 빈곤아동의 규모가 취약가족 자녀 규모가 될 수 있음.

- 2014년 아동빈곤율을 보면 절대적 빈곤율<sup>1)</sup>은 4.7%(정은희·이주미, 2015:73). 상대적 빈곤율<sup>2)</sup>은 7.0%임(정은희·이주미, 2015:77). 2014년 주민등록연앙인구 기준으로 초·중·고 재학연령대에 해당하는 5세-18세 인구 7,695,337명에 대하여 2014년 절대적 빈곤율인 4.7%를 적용하면 빈곤아동 규모는 약 361,680명으로, 상대적 빈곤율인 7.0%를 적용하면 538,673명으로 추정할 수 있음.

## 나. 연구문제와 분석틀

- 선행연구 검토 결과 학령기 자녀의 학습습관, 자아 존중감, 학업적 자기효능감 등은 학업성취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밖에 가족 요인으로 부모의 소득과 사교육, 부모의 양육태도, 부모자녀관계, 부모의 지원 등이 학업성취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이며, 사회적 지원 관계로 또래관계와 교사관계도 중요한 요인임이 확인됨. 학령기 자녀의 자아존중감은 학업성취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이면서, 동시에 학업성취 영향요인인 부모와 가족요인, 또래관계, 교사관계와 상호 작용을 하는 요인이 되는 것으로 확인됨.
- 이상의 연구를 종합하면 취약가족은 가족의 경제적 자원부족으로 인하여 사교육 등 학령기 자녀에 대한 충분한 지원을 하기 어려운 집단임. 물론 사교육이 학업성취에 영향이 없다는 연구도 있으며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지 않고 부모의 양육태도나 학업관리의 매개 요인이 작동한다는 연구도 있지만, 이는 동등한 소득수준과 사교육 지출을 한다면이라도 부모의 양육태도에 따라서 다른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것을 의미함. 결국 취약가족 자녀가 경제적 자원부족으로 사교육 등 학업 기회의 제약을 경험하지만, 부모 요인이나 가족 요인

---

1) 정부발표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한 빈곤율이며 1인가구를 포함한 수치임.  
2) 가처분소득 50%를 기준으로 하였을 경우를 의미하며 1인가구가 포함된 수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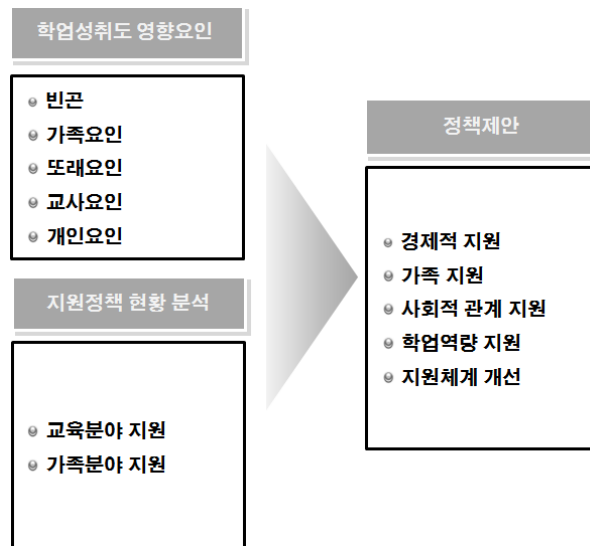


이 긍정적인 경우 학습습관과 자아존중감을 높이고, 학업성취에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음.

- 본 연구에서는 가족요인과 또래 및 교사관계가 학령기 자녀의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학습습관과 자아존중감이 매개하는지 경로를 분석하고 매개경로가 달라지는지 조절효과를 검증하고자 함. 이러한 검증 결과는 다음 장에서 살펴볼 취약가족 학령기 자녀 지원정책 현황 분석 결과와 매칭하여 지원정책의 빈틈을 밝히고 보완적인 지원정책을 개발하는 데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임.

#### ■ 연구 문제와 연구 분석틀

- 연구문제 (1) 빈곤, 가족요인, 또래관계, 교사관계가 학령기 자녀의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는 무엇인가?
- 연구문제 (2) 학령기 자녀의 학업성취도에 대한 영향요인에 근거할 때 현행 지원정책의 보완과제는 무엇인가?



[그림 1] 연구 분석틀

## 다. 취약가족 학령기 자녀 지원정책 현황

- 교육 분야 정책은 5개 중앙부처에서 33개 세부사업이, 교육청에서는 교육복지지원 정책사업 중 7개 단위사업이 추진되고 있음. 가족분야에서의 정책은 여성가족부의 취약·위기가족 지원사업의 ‘자녀학습·정서지원 서비스’가 있음.
- 2015년도 총 예산은 교육 분야 지원 중앙부처 690,980백만원, 교육청 교육복지지원사업 2,606,441백만원이며, 가족분야 지원 사업이 3,496백만원으로 총 3,300,917백만원임<sup>3)</sup>.
- 취약가족 학령기 자녀의 가족배정에 의한 학습격차를 보정하기 위한 정책사업은 프로그램 내용 측면에서 대체로 학습이나 교육 측면에서의 사업이 대부분이며, 가족을 포함한 사업은 부족함. 교육 분야 지원사업과 가족 분야 지원사업은 지원대상 기준이 가구소득 기준, 한부모가족 등 자녀가 속한 가족이 취약한 경우로 거의 유사하지만 서비스 제공 및 접근 방식에서 차이를 보임.
- 교육 분야 지원은 지원 대상 아동청소년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가족 분야 접근은 해당 아동청소년의 가족 내 양육자 기능의 공백 또는 결핍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여성가족부 취약·위기가족 자녀학습·정서지원 서비스는 지원 대상 가족 안에서 부족할 것으로 간주되는 양육자 역할을 보완해줄 수 있는 사람을 파견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가족까지 고려한 지원프로그램으로써 성격을 가짐.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청소년이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방식의 사업이거나 교육청의 교육복지우선

---

3) 예산 규모 파악이 가능한 수준의 단위사업을 기준으로 예산을 추출하였기 때문에 세부 사업 내역 가운데 취약가족 학령기 자녀 지원 정책의 성격을 가지지 않는 사업 예산이 일부 포함 되었을 수 있어 과대 계상된 한계가 있다.

지원사업 역시 아동청소년의 부모에 대한 상담이나 교육이 사업 내용에 포함되어 있어 가족에 대한 접근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님. 그러나 이들 사업에서 가족은 서비스 이용 아동청소년이 속한 환경 요인으로 간주되고 있고 실제 사업 운영 시 기관 실무자가 부모나 가족에 대한 개입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 서비스가 가족으로까지 확장 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 이는 이들 기관이 아동청소년대상 서비스 제공기관으로서 전문성은 있으나 가족지원관련 전문성은 부족하기 때문임. 지역사회 가족지원서비스 제공기관과의 연계 협력이 고려되어야 하며, 취약 가족 지원과 그 가족의 자녀에 대한 학습지원이 부처별 연계 없이 분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에 대한 개선이 요구됨.

■ 지원정책을 직접지원과 간접지원으로 구분하고 직접지원은 비용지원과 서비스지원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음.

● 전체 41개 사업에서 직접지원 방식은 29개 사업이며, 간접지원의 성격을 가지는 사업은 12개임. 29개 직접지원 방식의 사업에서 주로 비용을 지원하는 성격의 사업은 17개, 서비스지원 성격의 사업은 12개임<sup>4)</sup>.

■ 이상의 정책 현황을 종합하면, 취약가족 학령기 자녀 지원정책은 프로그램 성격에서 교육관련 내용의 사업이 대부분이며, 지원방식에서는 비용지원 방식의 사업이 대부분이며 예산규모가 큼. 또한 부처간 연계 협력체계가 없고 분절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지역사회에서 서비스 제공 기관 간 협력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선행연구 검토 결과에 의하면 학령기 자녀의 학업성취나 계층 간 학습 격차에 대하여 가족의 경제적 자원만이 아니라 부모관계나 가족역량,

---

4) 지원 방식에 대한 구분은 일반화 된 기준이 없으며, 복지급여를 구분하는 통상적인 기준(현금, 현물, 서비스)을 참고하여 연구자가 구분한 것이다.

또래관계, 교사관계, 학습동기, 자아존중감 등의 요인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됨.

- 따라서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비용지원 이외에도 아동청소년의 학습동기와 자아존중감 제고를 위한 지원방안, 부모-자녀관계 개선 및 가족역량강화를 위한 지원방안 및 관련 부처 및 서비스 제공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의 개발이 요구됨.
- 현행 지원은 학습관련 비용지원에 중심을 두고 있어 취약가족 자녀의 학업관련 역량 제고에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지원 방안이 보완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음.

#### 4 부모양육이 빈곤의 자녀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매개효과분석-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분석

##### ■ 분석 개요

-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수집된 한국아동청소년패널의 자료를 사용하여 빈곤이 자녀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력은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녀의 학습습관 및 자아존중감이란 매개변수를 통해서 설명되는지 분석함.
- 특히 또래와 교사의 역할이 중요한 초등학교 고학년과 중학교 시기 자료임을 고려하여 또래 및 교사관계를 경로모형에 포함하여 분석함으로써, 부모의 양육태도에서 학습습관 및 자아존중감을 거치는 매개경로가 또래 및 교사의 영향력을 통제한 후에도 유의미한지 규명하고자 함.

##### ■ 분석 결과

- 차상위계층을 기준으로 측정된 가구의 빈곤 여부는 자녀의 학업성취도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됨. 이러한 관계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자료 모두에서 나타났으며, 빈곤은 가족의 취약성이 자녀의 학업성취도를 낮추는 데 기여함을 알 수 있음

- 빈곤이 자녀의 학업에 미치는 경로로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녀의 학습습관 및 자아존중감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가정의 빈곤은 부모의 양육태도를 부정적으로 행사하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2년 뒤 측정된 학습습관을 통해 결과적으로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이처럼 빈곤이 양육태도와 자녀의 학습습관을 거쳐 학업성취에 이르는 경로분석 결과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모두에서 동일하게 나타남.
- 빈곤과 자녀의 학업성취의 관계를 설명함에 있어 양육태도의 매개효과는 또래관계와 교사관계가 통제되었을 때도 유의미하게 유지되었으며, 초등학교와 중학교 모두에서 또래관계와 교사관계보다 양육태도가 학습습관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큰 것으로 분석되었음. 특히 또래에 비하여 부모의 영향력이 줄어드는 것으로 알려진 중학교 시기에도 부모의 양육태도는 또래관계보다 학습습관 및 자아존중감에 더 강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한편 교사관계는 학습습관만 유의미하게 예측하였을 뿐 자아존중감과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음.
- 초등학교와 중학교 모두에서 학습습관은 자아존중감보다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분석되었음. 학습습관과 자아존중감의 학업성취에 대한 영향력을 측정한 표준화 경로계수를 비교하였을 때, 초등학교의 경우는 약 3배, 중학교의 경우는 약 6배 정도 학습습관의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남.
- 빈곤이 자녀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력은 부모의 양육태도, 또래 및 교사관계, 이후의 학습습관 및 자아존중감을 통제한 후에도 유지되는 것으로 측정되었음. 이는 매개변수들이 빈곤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력의 일부를 설명하는 부분매개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의미함.

#### ■ 정책적 함의

- 첫째, 초등학교 및 중학교 패널을 분석한 결과 가정의 빈곤은 자녀의 학업성취에 영향을 주는 가정환경 변수로 나타났다.
- 분석결과에 따르면, 초등학교와 중학교 모두에서 빈곤은 부모의 양육태도, 또래 및 교사관계, 그리고 학습습관 및 자아존중감을 통제한 후에도 직접적으로 자녀의 학업성취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실질적으로 가구의 기본적인 생활 유지를 위한 소득보장 정책과 함께 취약가족 자녀의 학습능력 신장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둘째, 부모의 양육태도는 빈곤이 자녀의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인지를 분석한 결과, 소득수준이 차상위계층에 해당할 경우, 그렇지 않은 가정에 비하여 부모의 양육태도가 부정적으로 나타나며, 이는 2년 뒤에 측정된 학습습관과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주고, 결과적으로 학업성취의 수준도 다르게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이러한 매개경로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모두에서 나타났으며, 또래와 교사관계가 통제된 후에도 유의미하였음.
- 부모의 양육태도는 지도감독, 애정적 양육, 그리고 합리적 설명이라는 3개의 긍정적 양육방식의 공통된 변량으로 설명되는 잠재변수로 측정됨.
- 본 분석에서 지도감독은 일상생활에서 자녀가 어디에서 어떻게 시간을 보내는지, 언제 귀가하는지에 대해 부모가 지도를 하고 있는지를 의미하고, 애정은 자녀들이 부모가 존중과 애정을 표현한다고 느끼는지, 힘들 때 용기를 주고, 잘 하는 것은 칭찬하는 양육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의미함.
- 합리적 설명은 자녀가 부모로부터 일상생활에서 해야 하는 것과 해서는 안 되는 것에 대한 설명을 합리적인 방식으로 듣는다고 생각하는지를 의미하는 변수임.
- 분석결과, 빈곤가정의 자녀일 경우, 부모의 양육방식이 이상과 같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않는다고 지각하기 쉬운 것으로

나타났으며, 양육방식이 부정적으로 흐를수록 결과적으로 이후의 학습습관과 자아존중감도 부정적으로 형성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 따라서 상대적으로 긍정적 양육방식을 사용하는 데 더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취약계층의 부모들을 대상으로 양육방식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으로 보임.

● 셋째, 경로모형의 분석결과, 학습습관이 학업성취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합리적이고 온정적인 부모의 지도감독과 자녀와의 소통을 통해 증진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또한 또래 및 교사와의 관계도 바른 학습습관 정립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남.

- 본 패널분석에 따르면, 취약계층 부모의 경우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자녀들도 또래 및 교사와의 관계를 형성하는 데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취약계층을 위해서는 부모의 양육을 대신하여 정부의 교육 및 복지서비스를 통해 학습습관 형성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하겠으며, 또래 및 교사관계 증진을 위한 방안들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임.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발표한 연구(이혜연 외, 2012)에 따르면, 지역아동센터와 방과후아카데미를 이용한 아동 및 청소년들은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늘고, 또래관계 증진에 도움을 받을 뿐만 아니라, 혼자서 공부하는 습관 형성에도 도움을 받은 것으로 보고 되었음.
- 종합해 볼 때, 취약가족을 위해서는 가족과 또래와의 긍정적 관계 증진을 돕고, 때로는 이들의 기능을 대신할 수도 있는 정부의 교육 및 복지서비스를 확대함으로써 바람직한 학습습관 형성을 통해 취약계층 자녀의 학업성취를 도모할 수 있어야 할 것임.

## 5 가족요인이 취약가족 자녀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분석-실태조사 분석

### ■ 분석 개요

- 설문조사를 통해 취약가족 자녀의 학업성취도에 대해 가족요인이 미치는 영향력을 학습습관과 자아존중감이란 매개변수를 통해 설명되는지 분석하였음.
- 조사대상자는 취약가족 아동청소년을 주요 서비스 대상으로 하는 여성가족부의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이용 초등학생과 중학생임.

### ■ 분석결과

- 가족요인이 취약가족 자녀의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보면 학습습관과 자아존중감이라는 매개변수를 투입한 이후 직접적인 영향력은 사라짐. 즉 자녀의 학업성취도 수준에 대하여 가족요인은 학습습관과 자아존중감을 거쳐 간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이는 초등학생과 중학생 모두 동일한 결과를 보임.
- 학습습관과 자아존중감에 대한 가족요인과 또래관계, 교사관계의 영향력을 비교하면, 초등학생과 중학생 모두 가족요인의 영향력이 크게 나타나며, 대체로 가족요인→학습습관→학업적 자기효능감 경로의 매개효과가 상대적으로 더 큰 것으로 나타났음. 즉 가족요인이 부정적일수록 자녀의 학습습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고 학업에 대한 자기효능감이 낮아지게 되는 경로를 거치는 것임.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성적이 상관계수가 있고 상호 영향을 끼치고 있어, 이러한 경로의 결과는 학업성취도의 지표인 성적이 낮아지는 것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있음.
- 경로모형에서 종속변수로 설정한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성적에 대한 경로변수의 설명력을 비교하면 성적보다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대한 설명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남.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성적과 상호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점에서 가족요인→학습습관→학업적 자기 효능감을 거쳐 성적으로 이어지는 경로를 가정한다면, 학습지원의 결과로써 성적 향상은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대한 개입 이후 시간차로 나타날 것으로 기대됨. 학업성취에서 성적은 가족 배경요인 이외에 문해력, 수리력 등 학업에 대한 능력과도 관련있는 변수로 단시간에 변화 가능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임. 이는 결국, 현재의 취약가족 학령기 자녀에 대한 학습지원 개입의 효과는 즉각적인 성과로 나타나지 않으며, 장기간에 걸친 사회투자가 요구됨을 의미함.

- 취약가족 자녀의 가족 요인의 차이에 대하여 가족구성과 소득계층에 따라 분석한 결과, 초등학생은 부모지원에 대하여 가족구성별 차이가 유의미하여 양부모가구의 지원수준이 더 높았으며, 중학생은 소득계층별 부모지원수준의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음. 부모관계는 초등학생은 가족구성과 소득계층에 따라 유의하였고, 중학생은 소득계층에 따라서만 유의한 차이를 보임. 가족역량수준은 초등학생과 중학생 모두 소득계층에 따라서만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가족구성에 따른 차이가 없었음. 이는 양부모가구와 비양부모가구라는 객관적 가족구성이 가족역량수준의 차이를 가져오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함.

#### ■ 정책적 함의

- 첫째, 경로모형에서 학업성취 중에서 주관적 지표인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대한 설명력이 객관적 지표인 성적보다 높고,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성적은 상호영향관계가 있어 가족요인→학습습관→학업적 자기효능감→성적으로 이어지는 경로가정이 가능함. 성적은 단기간에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기 어렵기 때문에 학습지원의 성과지표로 성적과 함께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둘째, 학습습관과 자아존중감이 가족요인과 학업성취도 간의 관계에 있어 영향력에 대하여 완전 매개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분석결과는 취약가족 자녀의 학업성취도 제고를 위한 지원체계는 학습과

가족요인을 동등하게 고려하여 설계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함. 비용과 학습측면 관련 지원에 편중되어 있는 현행 취약가족자녀지원정책이 보완되어야 할 근거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됨.

셋째, 가족역량수준에 있어서 가족구성에 따른 집단간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하면 취약가족을 가족구성이나 형태에 따라 접근하는 것에 주의할 필요가 있음.

- 양부모가구라 하더라도 가족역량 수준이 낮은 가족일 경우, 본 연구에서 분석한 구조모형의 경로 가정에 의하면 자녀의 학습습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결과적으로 학업성취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임. 그러므로 자녀 학습지원 서비스 대상자 기준에 경제적 자원이나 가족구성이나 형태 이외에 가족역량수준이나 부모-자녀관계 지표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동시에 취약가족 자녀 학습지원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학습지원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가족역량 강화를 위한 부모와 가족에 대한 개입이 필요함을 시사하는 결과임.

## 6 정책제언

■ 이상에서 취약가족 학령기 자녀의 학업성취도에 대해 가족의 빈곤, 부모요인, 가족 역량, 또래관계 및 교사관계와 자녀의 개인요인인 학습습관과 자아존중감 등의 요인이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음.

■ 취약가족 학령기 자녀 지원정책 현황을 보면 빈곤으로 인한 교육기회의 제약에 대한 개입으로 학습비용 지원이 있으며, 학업 성취 수준을 높이기 위한 자녀대상 학습지원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음. 그러나 취약가족 학령기 자녀의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된 가족역량, 부모요인에 대한 개입은 학습지원과 연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취약가족 학령기 자녀의 학업성취 수준 제고를 위한 정책적 개입을 자녀 환경요인에 대한 개입, 자녀 개인요인에 대한 개입, 지원정책 추진 체계 개선으로 구분하여 제안하고자 함.

## 가. 취약가족 학령기 자녀 환경요인에 대한 개입

### 1) 취약가족의 소득보장 및 교육비 지원

- 빈곤은 부모의 양육태도, 또래 및 교사관계, 그리고 학습습관 및 자아 존중감을 통제 한 후에도 직접적으로 자녀의 학업성취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확인되었음. 이는 자녀의 학업 성취에 대한 가족소득의 효과, 계층간 교육기회의 불평등에 대한 기존 연구 결과를 재확인한 것임.
- 취약가족 학령기 자녀의 학업성취에 대한 핵심적 정책은 해당 가구의 기본적인 생활유지를 위한 소득보장 정책이며, 생활유지비용 지원과 함께 추가적으로 교육비 지원이 요구됨. 한국사회에서 사교육과 대학 등록금 등으로 인하여 소득계층에 따른 교육기회의 제약은 중산층 가구도 교육비에 대한 부담을 심각하게 느끼고 있기 때문임.
- 2015년 6월부터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이 실시되면서 교육급여의 경우 중위소득 50% 이하로 기준이 완화되고 부양의무자 기준도 폐지되어<sup>5)</sup> 교육급여 수혜 대상이 확대된 점은 개선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음.
- 그러나 중위소득 50% 이상 가구의 경우도 생활비 지출에서 교육비에 대한 부담이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교육급여를 통한 교육비용 지원과 별도로 공교육의 내실화 등을 통하여 사교육비 지출을 억제 하는 방향의 정책도 지속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음. 이로 인해 공 교육에 대한 재정 투입 확대를 통한 교육비용 지원의 의미를 가질 것이다.

---

5) 보건복지부 [http://www.mw.go.kr/sotong/popup/page\\_infographic05.html](http://www.mw.go.kr/sotong/popup/page_infographic05.html), 2015년 11월 1일자 검색

## 2) 가족의 자녀 양육 역량 강화

- 가족요인은 부모의 양육태도, 부모의 학습관련 지원, 부모관계, 가족역량 등으로 측정되었고, 모두 학업성취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취약가족이 부모의 자녀 양육 및 교육 기능에 부족함이 있거나 부정적일 가능성이 있으며, 가족역량 수준이 낮아 자녀에 대한 적절한 학습습관과 자아존중감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줌.
- 그러므로 이에 취약가족의 부모 또는 보호자를 대상으로 자녀 양육 기능을 높이기 위한 가족지원개입이 필요함. 또한 취약가족의 구조적 결핍으로 인하여 양육자 역할을 할 자원이 부족할 경우 보완적 양육자 지원서비스도 제공될 필요가 있음.

### 가) 취약가족 부모교육 실시 제도화 필요

- 취약가족 학령기 자녀에 대한 부모교육은 학습지원사업 내용의 일부로 포함되어 있음. 학습부진 해소 및 학습관련 역량에 부모요인이 중요하기 때문인데, 적극적인 개입 및 지원을 위하여 학습지원서비스 이용과 부모교육을 연계하여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함.
- 가족지원의 측면에서 취약가족 학령기 자녀가 학습지원서비스 기관을 이용할 경우 일정 시수의 부모교육과 정기적인 상담 등을 기본 사업 내용으로 포함하여야함. 또한 부모교육 및 상담은 가족관련 전문 서비스 기관과의 연계체제를 구축하여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성과관리를 위하여 지속성을 가지도록 설계되어야 할 것임.

### 나) 자녀 학습지원자로서 부모역할 교육프로그램 개발

- 부모의 양육태도는 자녀의 학업 성취에 중요한 학습습관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또래관계, 교사관계보다 영향력이 크다는 점이 확인

된 점, 이는 사춘기가 되면서 부모의 영향을 벗어나는 시기인 중학생에게도 동일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부모교육은 자녀학습지원자로서 부모의 역량 강화에 목적을 둘 필요가 있음. 즉 취약가족 부모 대상 교육 프로그램 내 자녀학습 지원자로서 적절한 부모역할에 대한 내용이 개발되어야함.

- 예를 들어 ‘부자가족 아버지를 위한 내 아이 즐겁게 공부하는 자녀로 키우기’ 등의 제목으로 자녀의 학습동기, 학습습관을 길러주기 위한 부모의 역할에 대한 교육을 제공한다면 취약가족 부모의 교육 참여 동기 부여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됨.

#### 다) 양육 및 학습지원자 역할 보완(또는 대체)을 위한 지원서비스 개발 및 관리체계 구축

- 가족의 구조적 결핍으로 인하여 부모의 양육자 및 학습지원자 역할을 하기 어려운 취약가족을 대상으로 한 지원서비스가 필요함. 현재 여성가족부의 학습·정서지원서비스(배움지도사)가 유사한 기능을 하고 있으며, 지역아동센터 등 관련 서비스 기관의 교사들이 이용아동에 대하여 유사한 역할을 하고 있음. 여성가족부의 배움지도사는 사업 예산 등의 이유로 제한적인 대상에게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어 향후 성과에 따라 추가예산 확보를 통한 사업대상 확대가 필요함.
- 그러나 지원서비스 기관의 교사들이 기본업무와 병행하여 이용 아동 청소년의 부모를 보완하는 양육지원자 역할을 하는 부분은 서비스 기관의 고유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 그러므로 업무과중을 보완하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모색이 필요함.
- 예를 들어 교육지원청 실무자 면담에서 교육복지사업을 하고 있는 학교 중 학부모 자원봉사자와 취약가족 자녀를 연결하여 ‘엄마품멘토링’을 추진한 사례가<sup>6)</sup>가 있음을 확인하였는데, 이러한 방안의

6) 교육지원청 프로젝트조정자 면담에서 확인한 사례임.

지원서비스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자원봉사자와 취약가족 자녀를 연결하고, 취약가족 자녀를 멘토와 연결하여 지속적인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임.

- 이러한 서비스는 취약가족 자녀에 대한 학습지원의 성과를 위해서 장기간의 개입이 요구되므로, 지속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갖춘 멘토 양성, 멘토-멘티 연계 관리 및 지원 체계 구축 등이 마련되어야 함. 또한 이러한 기능은 지역사회와 취약가족지원서비스 기관이 담당해야 할 중요한 역할이기도 함.

### 3) 취약가족 자녀에 대한 또래 및 교사 등 사회적지지 체계 강화

- 가족요인 이외에 취약가족 자녀의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주는 환경요인은 바로 또래와 교사집단임. 학령기 자녀에게 가족과 부모를 제외하고 가장 영향력이 큰 집단이며, 이들에 대한 사회적 지지체제로 기능한다는 점에서 이들 요인에 대한 개입이 필요함.
- 우선 또래집단에 대한 개입은 취약가족의 학령기 자녀에 대한 동아리 활동 지원 등을 통해 가능할 것임. 본 연구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중 경로모형분석에서 초등학생은 또래관계의 영향이 매개변수 효과에 의해 사라지지만 중학생은 사라지지 않아 특히 중학생 단계에 있어 지지적 또래집단 형성을 위한 지원서비스가 필요함.
- 교사관계는 전반적인 학교 분위기 속에서 교사관계에 대한 주관적 인식으로 측정된 변수임. 현재의 학교 교사나 학교외 교사 모두 취약가족 자녀에 대한 교사 지지자로서 충분한 역할을 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됨.
- 다만, 학교 교사 이외에 학교 밖에서 만나게 되는 교사의 지지도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학교 밖 교사 지지자들이 많아질 필요가 있음. 그런 점에서 취약가족 자녀들이 이용 가능한 학습지원 서비스 제공기관의 공급이 확대되어야 함.

## 나. 자녀의 학습관련 개인요인에 대한 개입

- 학습관련 개인요인에 대한 개입은 취약가족 학령기 자녀에 대한 학습 지원, 학습습관 형성 지원, 자아존중감 제고 등임.
- 관련 지원서비스는 교육부의 방과후학교지원사업, 교육복지사업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등 취약가족 자녀 대상 서비스 기관에서 주요한 사업내용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하는 서비스임.
- 관련 사업의 성과평가에 있어서 학업성적이외에 학습습관이나 학업적 자기 효능감 수준의 변화 지표가 반영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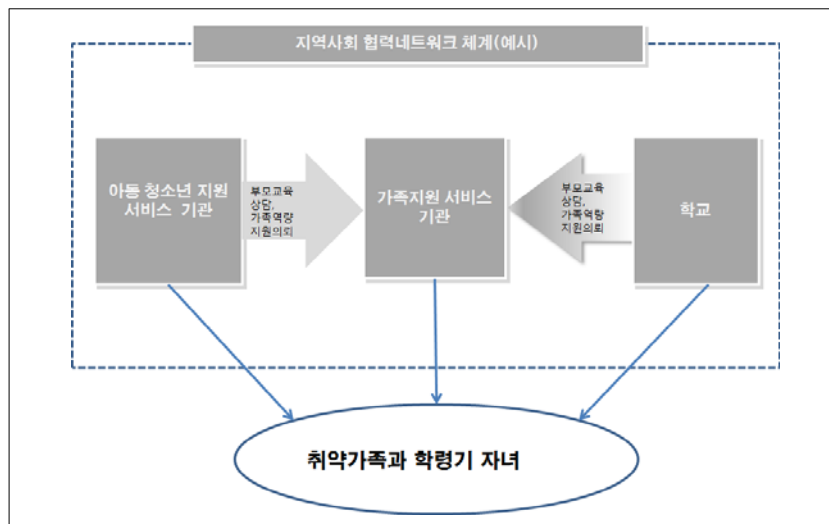
## 다. 취약가족 학령기 자녀 지원체계 개선

### 1) 유관 서비스기관 간 협력네트워크 구축 필요

- 현재 취약가족 학령기 자녀를 대상으로 학습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기관으로는 교육복지사업을 하는 단위학교,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건강가정지원센터 등이 있음. 그러나 취약가족 학령기 자녀의 학업성취도 영향요인분석 결과 가족에 대한 지원과 개입이 필요하다는 점이 확인되었는데, 관련기관 간 서비스 연계 협력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특히 지역사회에서 부모교육 등 가족지원서비스 전달기관으로써 건강가정지원센터와 여타 기관과의 협력은 매우 중요함에도 서비스 연계 및 협력을 위한 체계가 미흡함에 따라 개별 기관의 역량에 맡겨져 있는 실정임.
- 교육복지사업,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등 대부분의 서비스 기관이 지역사회에서 자원연계 등을 위한 협력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는데, 가족지원서비스 전달기관이 이에 포함될 필요가 있음. 예를 들어 앞서 제시한 부모교육 및 상담은 가족지원서비스 기관과의 연계사업으로 운영

될 때 학습지원서비스 기관과 가족지원서비스 기관 간 협력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임.

- 또한 취약가족 학령기 자녀에 대한 멘토링 제도를 통해 지속적인 양육 및 학습지원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관리운영주체로서 가족지원 서비스 기관이 적절하며, 학습지원서비스 기관과 연계 협력적 운영이 요구됨. 이에 아래 [그림 VI-1]의 예시와 같이 지역사회에서 취약가족 학령기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학습지원서비스 기관 간 협력네트워크가 구축되어야 하며, 여기에는 부모교육 등 가족지원서비스 기관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임



[그림 2] 지역사회 기관간 협력 네트워크 예시(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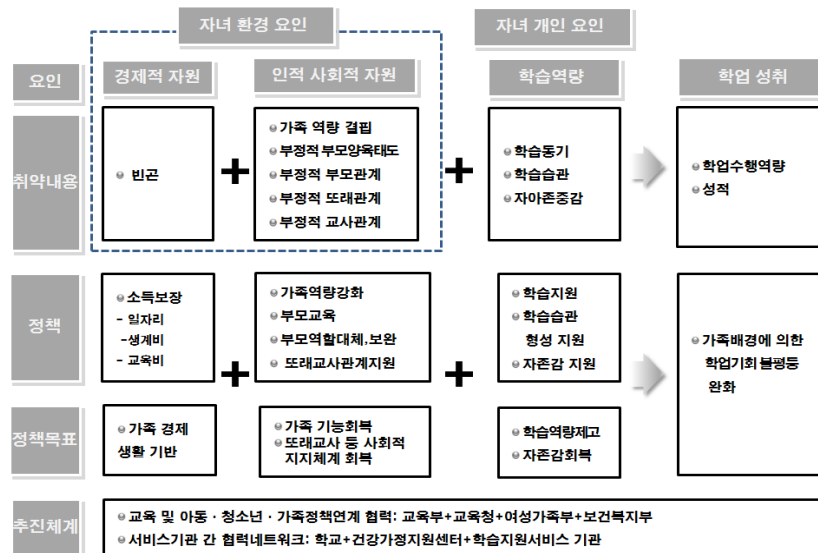
## 2) 교육정책 및 아동청소년정책, 가족정책의 연계 및 협력 필요

- 지역사회 기반의 취약가족 학령기 자녀 학습지원을 위한 협력네트워크 운영을 위해 현재 부처 간 분절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 특히 가족관련 개입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가족정책과의 연계협력을 위한 체계가 전혀 없는 실정임. 모든 단위사업에 포함된 부모교육, 가족상담 등이 가족지원서비스와 연계 협력하여 운영됨으로써 전문성과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함.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의 교육정책, 아동청소년정책, 가족정책이 취약가족 학령기 자녀의 학습지원서비스 효과성 제고를 위한 연계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될 필요가 있음.

■ 취약가족 학령기 자녀의 학업성취도 영향 요인 및 각 요인에 대한 정책과 정책 목표, 추진체계를 다음 [그림 2]와 같이 제안함.



[그림 3] 취약가족 학령기 자녀 지원정책 및 추진체계 제안

**주관부처 :**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 청소년활동진흥과, 가족지원과

**관계부처 :** 교육부 학생복지정책과, 교육지원청 교육복지사업담당부서